

감염인 커뮤니티의 현재와 미래대우바하

글 김현진 한국감염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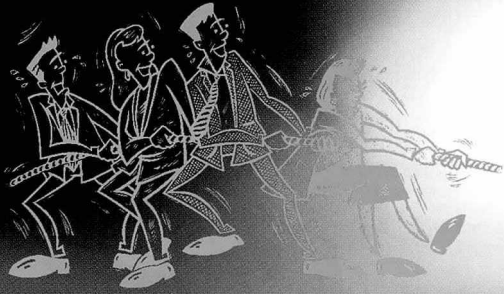
Community

한국에 에이즈가 발생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서 국가적으로는 물론 한국사회에 크나큰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은 개인은 개인대로 에이즈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며 에이즈 감염인에 대하여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에이즈 감염인들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자신들만의 세계로 숨어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어느 국가보다도 차별과 편견이 심한 한국의 감염인들은 비감염인들과의 교류에서 신분의 노출에 크나큰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비감염인들 또한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감염인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실정에서 한국의 감염인들은 경제적 고통을 비롯하여 치료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에이즈하면 떠 올리는 것은 성관계가 문란한 자, 동성애, 걸리면 죽는 병이라고들 생각한다.

그나마 1990년 후반 여러 감염인 자조모임들이 설립



되면서 에이즈라는 질병이 사회와 비감염인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회의 인식 속에서도 감염인 자조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했던 소수의 감염인 자조 모임의 멤버들은 대외적으로는 작으나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정부의 획일화된 정책과 비감염인들의 무지와 차별에서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감염인들의 인권은 항상 무시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정부나 사회단체 개인들 까지도 후원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과 감염인 스스로의 참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감염인 자조그룹에서는 적극적인 방안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년간 반복 되어왔던 감염인들의 인권과 권리의 부재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에서 단체, 더 나아가 단체들의 연대 및 화합으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하고 긍정적인 활동가를 발굴하여 많은 감염인들의 참여로 감염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기쁨을 마련하고 권리회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감염인들의 인권 및 권리를 정부에 피력하여 주권을 지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의 적극적인 활동모색은 향후 에이즈 감염인들의 인권과 권리 회복에 대한 노력을 발휘할 것이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각의 개인과 단체의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면 정부는

물론 에이즈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유대 관계 및 적절한 관리의 체계화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감염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딪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지하며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위한 협의체의 구성은 많은 감염인 및 각 단체의 발전과 감염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협의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개인과 단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에이즈 창궐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한민국 감염인들의 활동이 부재했던 원인은 사회통념상 가장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음을 부인하는 감염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위한 협의체의 구성은 향후 감염인들의 새로운 방향성의 제시와 함께 감염인들의 권리와 인권회복을 비롯하여,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